

0930(금) 스가랴 12-14장 새 하늘과 새 땅

스가랴는 <신약이 사랑한 구약성서>라 불릴 정도로
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70여 차례나 인용되고 있으며
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성큼 다가가고 있는 책입니다.
특히 9-14장은 수난 이야기와 깊이 관련됩니다.

(9:11 언약의 피, 출24:8, 눅22:20, 고전11:25 참고)

어둠과 불확실한 미래로 끝을 맺은 11장에 비하여
12장은 하나님의 놀랍고 눈부신 구원을 그려냅니다.
악한 지도자들이 이방나라에 백성들을 팔아넘기고(11:6),
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(12:2-3).
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바위 되게 하시며(12:3,7)
진영들을 교란시켜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(12:4-5,9).

승리와 구원 이면에 큰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(12:9-13:1).
그들이 찢은 이*로 인해 독자를** 잃은 듯 통곡할 것이며,
그 죽음에 대하여 온 세상이 애통할 것이지만(12:11-14),
이 죄를 씻을 샘이 열릴 것입니다(13:1, 겔36:25-29 참고).

*히브리어로 나(하나님)의 찢림, 메시아와 연결, 요19:37, 계1:7

**메시아적 의미로 사용 됨, 요1:18, 눅2:7, 롬8:29)

거짓 선지자와 악한 목자들이 제거될 것이며(13장)
여호와와 날,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(14:1-3).
새 하늘과 새 땅,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(14:6-11, 계21장-22:1-5)
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(14:9).

저주/멸망/진멸이 없이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(겔42:1-12).
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될 것입니다(14:20-21).

나는 <새 하늘과 새 땅>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사모합니까?

- ❶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사모합니까? (계21:3-4)
- ❷ 내게 속한 작은 <말 방울>까지 주님께 성별되기를 사모합니까? (14:20)

시작기도 + 통독 스가랴 12-14장